

# 직영사찰 회계, 총무원서 직접 관리 '전망'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비'

조계종이 내년부터 직영사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 관리 전반을 직접 관리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총무원장 스님이 직영사찰 회계담당 등 일부 총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정기적인 재무회계를 보고받는 내용이 신설된 '직영사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직영사찰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이다. 직영사찰에 관리인 스님을 임명해, 관리인으로 하여금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게 보편적이다. 현재 매월 재무제표와 분기별 사찰운영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총무원 총무부는 직영사찰이 당초 지정 취지인 목적불사 수행과 재원출연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총무원장 스님이 직영사찰 예산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직영사찰 총무원 가운데 총무실장

### 총무원장 스님이 회계종무원 임면

### 고용 안전성과 함께 재정 투명성도 높여

### 매주 시재현황 보고 월말잔액 종단 적립 목적불사 등에 사용

및 회계담당 총무원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임면하고 회계담당 총무원은 매주 금요일 해당 직영사찰의 주간시재현황을 총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직영사찰 예산 중 사찰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은 총무원 재무부로 이관, 적립하고 해당 사찰의 재무부제, 목적불사, 목적용 부동산 매입 및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회계담당을 임명하고, 시재액을 매주 보고받는다. 이는 직영사찰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직영

사찰 회계담당자를 중앙총무기관 총무원으로 고용하거나 종단에서 파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총무원도 바뀌는 사찰의 고용문화를 고려해보면, 해당 총무원은 고용이 안정된다는 장점과 함께 중앙총무기관의 총무원으로서 종단과 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찰회계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회계담당자가 매주 사찰의 시재현황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면, 관리인 스님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누락 등 위험요소도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

로 예상된다. 적립금을 총무원 재무부로 이관해 적립해서 특정목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적불사 수행을 위한 직영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무원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직영사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직영사찰 관리인 스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정리해 이르면 내년 초 총무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어현경 기자 eonkko@bulgyo.com

## 원자력은 사양산업 脫원전 정책 '촉구'

### 조계종 환경위 성명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전증설계획 유지에 우려를 표하며 제대로 된 전력수요 관리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환경위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원자력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늘린다는 내용과 전기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명백히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요관리도 실패해 일인당 전기수요는 세계 3위이고 작은 국토이면서도 원전개수는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20년 후에는 일인당 전기사용량이 세계1위, 원전개수는 세계 2-3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환경위는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반성 없이 잘못된 관행을 추종하며 대안 없는 원자력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재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전기수요를 제대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라"고 주장했다. 홍다경 기자 hong12@bulgyo.com

## 국제개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26일 불교활동가 워크숍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 26일 오후5시부터 조계종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활동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아름다운 동행, 지구촌공생회 등 10여 곳의 단체에서 참가하며, 각 기관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노하우 공유, 향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활동방안 논의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의 실무자나 국제협력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반야심경 칠정례 이어 천수경 한글화 마무리

### 이레위, 일상의례의식 한글작업 일단락

조계종 이레위원회(위원장 인목스님)가 <천수경> 한글화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공포판을 앞두고 있다. 이레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본과회의실에서 17차 이레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글전수경을 의결했다. 완성된 한글전수경이 총무원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반야심경, 칠정례, 천수경 등 일상의례의 한글화가 일단락된다. 이레위원장 인목스님은 "반야심경, 칠정례에 이어 천수경까지 한글화돼 기쁘지만 조심스럽다"며 "애써 만들었지만 미진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글반야심

경처럼 한글전수경을 공포한 뒤에도 많은 의견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지적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좋은 한글전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수경 한글화를 마무리한 이레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첫째 월요일에 정례회의를 갖고 사시불공, 시시, 천도재, 상장례 의식 등에 대한 한글화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표준급 강경에 이어 표준아미타경 번역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스님들을 위한 삼귀사, 사후서원 한글화도 준비 중이다. 어현경 기자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지난 16일 종호스님 회주 추대 법회와 함께 김승석 신도회장 취임식을 갖고 '제주불교 발전'을 기원했다. 기념촬영 사진에서 보듯 이날 법회에는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까지 대거 동참, 이목을 끌었다.

## 서로를 부처님처럼 섬기는 불국토 '서원'

### 관음사 회주 종호스님 추대...제주불교 발전 '기원'

### 김승석 신도회장 취임...필리핀 돕기·장학금 이어져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성호스님) 회주 종호스님 추대법회가 지난 16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안도·지성·성우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관음사 주지 성호스님, 김선우 제주도 부지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종호스님의 회주 추대를 축하하고 제주불

교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선 김승석 관음사 신도회장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관음사 회주 종호스님은 추대법회에서 "산승을 회주로 추대하기에 그 인정을 거절할 수 없어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불자들에게 인연을 갚는 길이 될까 이 자리에 올랐다"며 "이 작은 인연으로 불법 정진에 더욱 매

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서로를 부처님처럼 섬기는 불국토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호스님은 1935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으며, 1955년 우하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0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관음사 주지 성호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추대되는 회주 스님의 수행자 흔적은 경전을 보는 듯 마치 관음사의 미래를 보는 듯이 상서롭기 그지없다"며 "회주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교구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승석 신

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도회를 이끌면서 부처님의 교법에 맞는 일만 할 것이며,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풍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엄숙히 선서한다"며 "관음사 신도회가 길 떠나가는 이들의 안내자가 되는 '관음 공덕회'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관음사는 추대법회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복구 성금과 지역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보시하며 귀감이 됐다. 아울러 관음사 발전에 공헌한 불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했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 '감사원 월권' 1면에 이어

감사원이 예비감사 과정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사찰에 직접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가 오해를 유발하기 충분하다. 게다가 감사원이 국가기관이나 법률이 정한 단체 외에 사찰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하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은 감사원이 유례없이 사찰에 정부보조금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을 월권으로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총무원장 자승스님 주재로 총무원담화를 열

어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사찰에 자료를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18일(17일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열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정부가 문화재보수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수 현장인 사찰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종단과 공식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게 종단의 입장"이라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종단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제3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4. 1. 5.(일) 오후 2시 해운대 벅스코 3층 컨벤션홀

제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제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 대상 : 조계종 사찰 신도로 3인 1조 구성(청소년 1인 필히 포함)
- 참가비 : 팀당 3만원(포교 기금에 사용)
- 퀴즈내용 : 예상문제 배부 80%, 일반상식 20%  
예상문제는 현재 다음 카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cafe.daum.net/bsbuddhism)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품 : 상금 1등 : 1팀(100만원)  
2등 : 2팀(각 5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증명서 및 회고 및 상품  
- 그 외 참가팀들에게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전송  
예상문제 및 신청서는 다음 카페 'cafe.daum.net/bsbuddhism'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bsbuddha@daum.net 전화 051)501-7554 팩스 051)501-9333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